

확실한
변화를 위한
선택!



진보당
광산구의원 후보

5계! 박혁영

- 영암군 금정면 출생
- 영암여자고등학교 졸업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항해학전공) 졸업
- 현)진보당 광산구갑지역위 공동위원장
- 현)문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현)진보당 광산구 전투기 소음피해보상 확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현)문남동 자율방재단 단원
- 전)문남동 통장
- 전)문남동 주민자치회 위원
- 전)문남동 자원봉사캠프지기

책자형선거공보

광산구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운남동, 월곡1동, 월곡2동, 우산동, 신흥동

주민의
마음에 감동으로
명중하겠습니다!

활을 쏘기 위해 사대에 섭니다.
과녁을 맞추기 위해서는
잡념을 지우고 과녁만을
응시해야 합니다.

박혁영의 시선과 마음은
오로지 주민의 마음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박혁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5계!

진보당
광산구의원 후보

박혁영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광산구의회의원선거(나선거구)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5	진보당	박혁영	여	1979.12.26. (46세)	정당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항해학전공) 졸업	(현)진보당 광산구갑지역위 공동위원장 (현)진보당 광산구 전투기 소음피해보상 확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987,127	155,093	781,456	부:고지거부 모:고지거부	장남:13,881 차남:26,102 삼남:10,595 장녀:없음	병역의무 없음		-장남:공군 병장(만기전역)/ 2025.2.28 공군사관학교 입교 -차남:공군 병장(복무중) -삼남:육군 상등병(복무중)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11,932	0	0	-폭행 재물손괴 : 벌금 1,000,000원 (2019.07.16)
후보자	743	0	0	
배우자	10,111	0	0	
직계존속	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1,078	0	0	

4. 소명서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공익적 문제 제기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꾸면 우리 동네가 변합니다!

진보당 구의원이 1명도 없었던 지난 8년,
우리의 삶과 동네는
새로운 변화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새도 양날개로 높고 멀리 날아가듯,
광주전남 정치도
진보와 민주 양날개로 날아야
주민의 삶이 더 좋아집니다.

확실한
변화를 위한 선택
5개! 박혁영



우리동네
기분좋은 변화

5개! 박혁영 이 합니다!

동네마다

- 복합문화센터 조성
- 청년 주택(임대료) 지원
-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 확대
- 생활 밀착형 마음건강 플랫폼 구축
-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세대마다

- 학교앞 주민순찰단 운영 지원
- 청소년 특화 동아리 활동 지원
- 맞벌이부부 가사 지원 서비스 확대
- 학부모 소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중장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곳곳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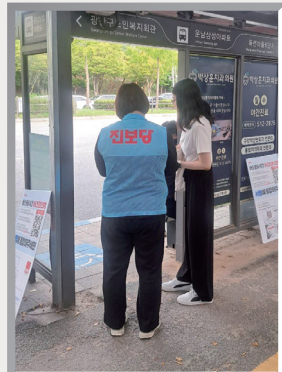
- 건강이 살아나는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 혜택이 돌아오는 페트병 회수·보상 확대
- 안전이 지켜지는 담배꽂초 수거보상제 강화 확대
- 청결이 유지되는 산책로 펫 위생서비스 확대(배변봉투 비치)
- 환경이 좋아지는 오수·우수관 분리 추진

골목마다

- 밝아진다! 스마트 안심조명 설치
- 안심된다! CCTV·안심벨 설치
- 살아난다! 광산페이 확대 추진
- 편해진다!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개선
- 안전해진다! 골목 보행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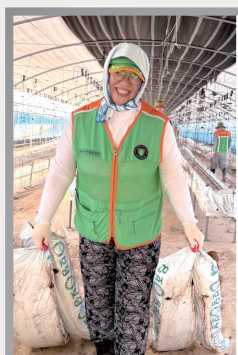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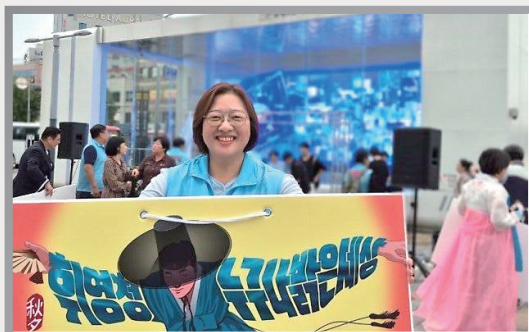
도로마다

- 집앞까지 편리한! 버스노선 신설·확대
- 기다림도 스마트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확대
- 넘어짐 없이 안전한! 무장애 보도블럭 교체
- 한눈에 쏙 들어오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
- 한번에 건너는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누가봐도 일 잘하는!

5계! 박혁영



싱무 62번 이야기

“큰 병원 한번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멀어서 힘들어”
- 우산동 00아파트(70대, 여)

“정류장이 너무 멀어서 바쁜 아침 시간에 학교에 늦지 않으려면 뛰어야 해요. 정류장은 언덕 위로 큰 길에 있으니 여름에는 아침부터 녹초가 돼요”
- 고등학생(10대, 남)

주저 없이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청원 서명을 받고, 구청과 시청의 담당자를 만나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편안하고 쾌적해질 수 있다면
필요함을 채우고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

진보당 박혁영이 합니다!